



하루에 하나

2025.7.8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64.20원 (+1.90원)

KOSPI

3,059.47 (+5.19, +0.17%)

KOSDAQ

778.46 (+2.66, +0.34%)

국고채 10년 금리

2.840 (+0.01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조선 [신규]	Made in KorUS [유재선]
Total ETF	복합적인 시그널. 디테일에서 찾아보는 방향성 [박승진]
7월 자산배분의 창(窓)	美 경기 정점 이후의 진실 [이영주]

Global Asset Strategy

DIN (Doo It Now)	니가 사는 그 집, 빈집 [김두연]
자산배분 Weekly	英 재정 불안: 또 다시 흔들린 국채시장 [이영주]

기업분석

에이피알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박은정]
달비글로벌	분기 최대 실적 전망 [박은정]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가능성과 BS까지 시장 확대 부각 [김선아]
넷마블	완벽했던 상반기 [이준호]
SK텔레콤	올해 배당금은 유지될 전망, 약재 소멸로 봐야 [김홍식]
LG에너지솔루션	힘든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익 레벨 [김현수]
LG전자	소비심리 둔화로 예상치 하회 [김민경]

산업분석

미디어엔터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상 무 [이기훈]
운송	6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점 [안도현]

Monthly & Weekly

계약	하나 월간 계약/바이오(7월) [김선아]
건설	수도권 과열 시 추가 대책 예고 [김승준]

WEDBUSH × 하나

Datadog Inc.	S&P500 편입과 AI 전략 강화 [박승진]
--------------	---------------------------

단기투자유망종목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현대차, 삼성전자, S-Oil, 넷마블, 현대백화점, 롯데월드, 와이즈엔터테인먼트, ISC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7월 7일

HD현대중공업(329180)

BUY | TP 490,000원 | CP 377,500원

HD현대마린엔진(071970)

BUY | TP 55,000원 | CP 44,450원

2025년 7월 8일 | 산업분석_Initiation

조선

Made in KorUS

우호적인 규제 흐름과 미국의 정책

MEPC 제83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이행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기본목표와 직접목표를 기준으로 준수 여부에 따라 비용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1톤당 480달러까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친환경 엔진 채택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 엔진 제작능력에서 경쟁국을 압도하고 있어 오랜 기간 수주 경쟁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이 세계 조선업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중국 조선업, 해운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국 조선업 밸류체인 부활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연초 제시되었던 중국 대상 수수료 정책도 초기와 다르게 소폭 완화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의도는 중국 견제로 압축되며 해당 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 등 우방국의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환율 우려에도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

2025년 하반기 조선 커버리지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은 38.9조원, 4.2조원으로 전년대비 9.1%, 9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수주한 저가 선박의 인도가 대부분 마무리되며 고가 물량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원가 이슈는 제한적이고 인력 효율성 제고가 확인되고 있어 중장기 실적 우상향 추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강세 흐름은 실적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건조 Mix 개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조선소 건조 가능 슬롯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 VLCC는 2024년 대규모 발주 이후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LNG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 카타르, 호주 등의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은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으로의 발주 랠리가 확인된다. VLCC는 선복량 대비 수주잔고의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야드 효율성 개선 목적 이상의 수주는 언제든 가능하다. 수주잔고 길이가 3년 미만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Top Picks: HD현대중공업

2025년 하반기 조선 섹터 Top Picks로 HD현대중공업을 제시한다. 상선, 해양, 특수선, 엔진 등 모든 부문을 영위하는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시장 강세 국면에서 기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개선되는 실적에 비례하여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관심종목은 HD현대마린엔진이다. 아직 매출에서 D/F 엔진의 비중이 10% 미만인 점에서 향후 개선될 포인트가 상당하다. HD현대 계열사로 인수된 이후 가동률 및 캡티브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룹사 시너지가 수주로 증명될 전망이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2025년 7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Total ETF

복합적인 시그널. 디테일에서 찾아보는 방향성

- 퀄리티와 모멘텀의 ETF 포트폴리오

Market& Ideas: 엇갈리는 시그널 확인 전망. 디테일들을 확인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Bad is Good'의 시각 유지

- 여전한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 주요 경제지표, 기업 실적, 연준 이벤트까지 뒤섞인 방향성 확인하게 될 가능성 ↑
- 다양한 방향의 펀더멘털 해석 여지 존재. 'Bad is Good' 관점에 대한 유지 필요
- 미국의 관세, 감세 정책의 본격적인 영향 확인 구간. 확정 시점이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판단 오류 현상이 불확실성 요인
- 고용시장은 표면적 내용과 달리 세부 내용들이 악화되고 있고, CPI에도 관세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
- 연준의 급진적 스탠스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 GDP 역시 노이즈 반영 통해 긍정적으로 포장될 가능성 염두
-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는 이미 낮아져 있고, Forward 실적 기대가 상향. 가이던스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

Ideas: 변동성 관리 혹은 모멘텀 집중 포지션의 선택

1) 퀄리티 중심

- FTLS(퀄리티 롱/숏), QGRO(퀄리티 성장주), WON 미국 빌리어네어(우량 포트폴리오)

2) AI/반도체 테마

- SMH(반도체), AIQ(AI), ARTY(AI), THNQ(AI), KODEX 미국반도체,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3) 비트코인/블록체인/금융테크/정책

- WGMI(비트코인 채굴), BLOK(블록체인), BKCH(블록체인), BITQ(블록체인), FDIC(블록체인+디지털결제)
- KODEX 미국 금융테크 액티브, RISE 미국은행 TOP10, TIGER Fn신재생에너지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황수미 shwang@hanafn.com

2025년 7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월 자산배분의 창(窓)

美 경기 정점 이후의 진실
(부제: 주택, 신용, 소비의 전환점 맞이)

미국 주택시장, 정상화를 향한 그 첫걸음 “재고 반등”

팬데믹 때 급격히 상승했던 주택 가격 추세는 정점 찍고 둔화 조짐. 변화의 트리거는 "주택 재고의 반등". 재고 증가와 더불어 등록 속도 또한 가파른 상황. 보유주택의 매물 출회&신축 공급 확대라는 구조적 요소 존재. 최악의 재고 사이클 탈피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 중. 단, 재고 회복 속도에 지역별 차별화 생기면서 가격 하방 압력도 지역별로 다른 모습 관측

문제는 여전히 더딘 수요 회복

모기지 금리 하락은 수요 회복에 긍정적이거나, 동시에 매도자들의 펀딩 물량을 끌어낼 수 있음. 현 상황에서는 수요 회복보다 공급 확대를 부추겨 '재고 과잉' 시나리오 진행 가능. 현재 미 가계는 높은 금리와 낮은 구매 여력에 수요 회복 더딘 상황. 당분간 미 주택 시장은 재고 반등과 수요 정상화 지연 예상. 주택 건설업체 심리는 전반적 하락 추세 향할 것

FICO Inflation: 실질적 신용 개선 아닌 일시적 착시

팬데믹 기간 재정 부양책, 대출 상환 유예, 연체 추심 중단 등으로 FICO 신용 점수의 비정상적 상승, FICO 인플레이션 발생(저소득층 중심 점수 상승). 평균 점수 상승하며 고위험군 차주들에게 일시적 이점 제공. 이는 실질적 신용 개선 아닌 일시적 착시에 의한 것. 신용카드/자동차 대출 연체 증가 속도 빠른 가운데 학자금 대출도 급발진. 특히 저소득층 연체율이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

美 실질 소비의 둔화

올해 미국 가계 실질 소비 성장률은 YTD -0.2%. GDP 70% 비중인 소비가 성장하지 못하면 경기 둔화 불가피. 관세, 고용 불안 등이 소비자 심리를 제한. 이에 더해 최근 자산 가치 변동성 확대되는 점은 불안 요소. 소비 근간이 되어 온 금융/주택 자산의 조정 가능성. 이미 저축 여력 낮은 계층의 어려운 사정은 연체율, 임금 상승률, 고용지표 등의 실물 지표에서 확인 가능. 여전히 가계 순자산 높지만, 이는 주택 보유자에 편중. 무주택자/신규진입/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소비 환경 지속

거세지는 트럼프의 자국 기업 압박

트럼프 관세 압박은 자국 기업에도 해당. 미국 내 생산 압박에 기업 전략이 정치 리스크에 노출. HY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서 작년 대비 뚜렷하게 커진 마진 압박과 재무 건전성 둔화 확인. 다행히, 유동성/감세안/규제완화 기대로 스프레드 흐름 견고하나, 추가 축소는 부담스러운 구간.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와 정부 압박에 소비자 가격 전가를 제한하면서 관세 비용을 감당하는 중

Key Takeaways

- 신흥국 중심 주식 비중 축소
- HY 등 저신용등급 크레딧 비중 축소
- 금 비중 확대
- 추천 ETF: SMH, QGRO, 390390, 0028X0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영민 hyeongmin.ha@hanafn.com

2025년 7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DIN (Doo It Now)

니가 사는 그 집, 빈집

(결론적으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재정비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공백을 주목해야 한다. 일명 외국인의 '빈집털이' 전략이다. 과거 외국인이 많이 샀던 업종들 중에서 (1)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2)이익이 개선되며, (3)주가 상승폭이 큰 업종을 선별했다. 첫째, 과거 고점대비 하락 폭이 큰 업종. 즉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으로 에너지,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건설 등이 있다. 둘째, 이익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에너지, 디스플레이, 건설, 소매(유통), 기계, 조선 등이 있다. 셋째, 주가 시세가 확대 중인 업종으로 기계, 비철금속, 유틸리티 등이 있다. 한국 증시의 기세가 좋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기호에 따라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꾸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정에 대한 기우(杞憂)가 점증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분수령에선 지속적인 불안은 기회를 놓친다. 판의 변화를 꿰뚫어 봐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은 기세가 좋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에서 등락을 보이고 주도주(조선/방산/원전)의 상승 탄력이 완만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상호 관세 유예의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관세발 불안감이 확대됐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낮다. 하나증권은 가파르게 올라온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감안해 볼 때,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지, 그 폭이 크지 않으며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7/7 주도주는 아직 살아 있을까).

3%률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시발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 자산 리밸런싱(부동산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유인이다. 달러 약세와 유동성 증가 국면에서 정책공조(추경+금리인하) 기대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확대시킨다. 하나증권은 작금의 재정비 시간을 거치고 나면 코스피 지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며 지수의 상단을 3,710pt까지 열어두고 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재정비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시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물꼬를 트는 것인 수급이며 경험상 외국인 수급이 종종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 일명 외국인의 '빈집털이' 전략을 대비 해야 한다. 과거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업종 중에서 (1)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2)업종의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며 (3)최근 주가의 상승 폭이 직전 3개월 평균보다 높은 업종들을 선별했다. 과거 고점 대비 외국인 수급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업종은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할 업종이다. 에너지,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건설 등이다. 올해와 내년 당기 순이익 전망치가 30% 이상 증가하고, 과거 3년 평균 금액에 비해 올해 당기 순이익 전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에너지, 디스플레이, 건설, 소매(유통), 기계, 조선 등이다. 주가가 시세를 확대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 비철금속, 유틸리티 등이다, 길지 않을 재정비 시기에는 기호에 따라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꾸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내외 주식시향 김두연 kimdoun@hanafn.com



英 재정 불안: 또 다시 흔들린 국채시장

자산배분 Weekly | 2025.7.7

해외크레딧/자산배분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RA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주간 체크 포인트 (6월 30일 ~ 7월 4일)

크레딧 주간 동향

- 미국 10년물 4.348% (+6.9bp) / 독일 10년물 2.606% (+1.6bp)
- 미국 IG OAS 76.6bp (-8.5bp): 금융,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재 섹터 순 스프레드 축소 기여
 - ISM 지수와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 상회함에 따라 7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면서 시장금리 상승
 - 반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크게 축소. 휴장과 기업 실적 시즌 앞두고 발행시장이 소강 보인 한편, 강한 시장 수요가 이를 뒷받침
- 미국 HY OAS 269.8bp (-22.8bp):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섹터 순 스프레드 축소 기여
 - 에드라인 경제지표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낮추면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 트럼프 정부 감세안의 상하원 통과에 따른 HY 기업들의 수혜 기대와 무역 갈등 완화 흐름 역시 HY 스프레드 랠리에 기여
 - 다만, 기업 투입비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둔화 흐름은 향후 가계 소비 여건 및 경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 관찰 필요

시장 인사이트

둔화하는 미국 소비 지출

- 美 5월 실질 소비 지출은 MoM -0.3% (시장 예상치 0.1% 하회)
 - 전년 대비 변화율도 뚜렷한 감소세. 전월 2.9% 이후 5월 2.2%로 급락
 - 올해 1분기 소비 성장률의 하향 조정 (1월: -0.6%, 2월 -0.1%, 3월 +0.7%, 4월 +0.1%, 5월 -0.3%)
 - 3월 소비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관세 부과 전 자동차 구매를 늘린 효과
- 올해 실질 소비는 YTD -0.2%
 - 미국 GDP의 70% 비중 차지하는 소비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실제 미국 경기는 둔화하게 될 것
- 소비 심리를 제한하는 요소
 - 1)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 2) 견실한 고용시장 흐름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기업 마진 압박 ▷ 일자리 신뢰 약화 ▷ 향후 소득 전망 불안
 - 3) 자산 가치 변동성 확대
 -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큼
 - 주택 가격은 매물 증가로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주택이 美 중산층의 주요 자산인 점을 고려해 소비 심리 반동에 제약이 될 것
- 재정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
 - 'BBB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감세는 2017년 감세법 (TCJA) 연장선. 가계 소득을 지원할 새로운 재정 지원책은 거의 없음
 - 개인 총 소득은 MoM -0.4%. 농가 소득 약화 및 공무원 대상 일회성 사회보장 지급이 종료된 영향 (3월 수준으로의 되돌림)
 -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나, 관세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이른 국면
-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
 - 2021년 "일시적 (transitory)" 인플레이션 판단 실패로 비판 받았던 경험을 의식
 - 카시카리,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강조. 단, 첫 인하 시점 9월로 예상 (관세 압력과 인플레 경로에 대한 확신)
- 미국 소비는 관세 인상과 고용 및 자산시장 불안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 이 가운데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당분간 보수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유로화 강세 지속, 1.20 레벨을 바라보는

- 달러 약세 Vs. 유로 강세. 6월 중동 불안에 따른 달러 반등은 짧고 제한적. 통상, 유가 급등 및 지정학 불안은 달러 강세 견인해 왔으나, 이번처럼 빠르게 약세로 재전환된 점은 이례적
 - 현재 달러의 구조적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 미국-유럽 단기 금리차 축소 Vs. 유로-달러 환율 상승
 - 6/1~7/1, 유로-달러 환율은 1.13에서 1.18까지 급등하며 강제 흐름 심화
 - 동 기간, 미국-유럽 금리차 (IRS 2Y 기준)는 약 20bp 축소 (EUR IRS ↑, USD IRS ↓)
 - 하반기 Fed 금리 인하 가능성 커진 반면, ECB 통화 완화 기조는 속도 조절 가능성 거론
 - 6/24~25, 독일 예산안 통과 또한 EUR 통화 강제 및 독일 국채 금리 반등에 영향 (순차입, 순예산 모두 확대)
- 당분간 유로-달러 환율은 어떻게 흘러갈까?
 - 유로화 강제 추세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고 있으나, 당분간 현 레벨 (1.15~1.18)에서 등락 가능성 높음
 - 레벨 돌파를 위해 추가적 촉매가 필요한 상황. 정책적 요소가 아닐 경우, 단기 금리차 (통화정책 기조)가 될 것
- 유로-달러 환율의 New 레벨 1.20 안착을 위해 지켜볼 촉매제
 - 재정정책적 요소: 美 재정 리스크 확대 (감세안, 예산안 통과), 관세 리스크 재점화
 - 통화정책적 요소: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는 경우), ECB 통화정책 변화 (매파적)

7/2 영국 국채 금리 폭등 & 파운드화 약세

- 英 1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15bp, 20bp 급등
 - 영국 정부의 지출 확대 ▷ 정부 차입 증가 ▷ 국채 발행 증가 ▷ 금리 상승 가능성
-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 하락
 - 재정 불안 ▷ BOE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 축소 ▷ 파운드화 약세
- 7/2 사태 파악
 -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그동안 긴축 재정 기조 (세금 인sha보다는 지출 억제)를 유지해 왔음
 - 하지만 최근 스타머 총리가 재무장관의 임기 지속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시장에서는 리브스 퇴임 우려가 부각
 - 이에 시장은 새 장관에 의한 재정 규칙 완화와 지출 증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 현재 BOE의 금리 경로보다도 재정 우려가 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상황
 - 물론 평소에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전망에 따라 단기물 중심의 움직임이 클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 적자와 차입 증가'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영국 국채의 수급 충격 가능성'에 보다 예민한 모습
 - 게다가 영국은 2022년 '미니 예산 사태 (트러스 총리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음. 투자자들은 영국 재정정책에 특히 민감

영국 재무장관의 거취 불확실성

- 英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의 거취를 둘러싼 의문에 크게 흔들린 영국 국채 시장
- 英 총리 스타머가 의회에서 재무장관의 향후 임기 지속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새로운 재무장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후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 리브스 장관에 대한 신뢰도를 재차 확인해 주었으나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음
- 노동당과 시장의 동상이몽 [도표 참고]
 - 1) 노동당 관점: 집권당 (노동당) 내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폭발
 - 노동당은 좌파 정당으로 공공 지출 확대 공약 내세웠음에도 정부 (재무장관)가 엄격한 재정 기조 택하고 있어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토로
 - 2) 시장 관점: 시장 (투자자)은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크게 반영
 - 시장은 집권당과는 다르게 '재정 지출 확대 ▷ 적자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 금리 상승'이라는 수급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
- 그러나 영국 재정 규칙의 변경 가능성은 낮음 (ex. 긴축에서 완화로)
 - 이번 시장 반응 고려해보면, 재무장관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 규칙 (기조적 전환)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
 - 영국은 이미 연간 3,000억 파운드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추가 차입에 대한 시장 경계심이 높은 상황
 - 2022년 트러스 정부의 '미니 예산'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시장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만큼, 현 정부도 시장 충격을 우려해 급격한 규칙 변경은 피하려고 할 것
 - 결국, 올 가을 세금 인상이 주된 재정 대응 수단이 될 전망 (유럽 지역의 주요 컨센서스)
- 파운드화 약세 추세는 변함없이 그대로
 - 이번 파운드화 약세 (유로화 대비)는 올 4월 시장 불안 때와 비슷한 변동폭을 기록 (4월에도 EURGBP 환율은 0.87까지 급등)
 - 시장은 BOE의 9월 통화정책에서 양적 긴축의 제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상황. 실제 2022년 BOE는 국채 시장 수급 불안을 느끼며 9월 한 달간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동시킨 사례가 존재
- 이번 사태의 과격한 환율시장 반응은 시간이 지나며 진정될 가능성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된 파운드화 약세 및 유로화 강제 추세는 지속될 것 (EURGBP, 25.1월 0.82 → 7/2 0.865 ▷ 연말 추가 약세 가능성)

2025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상향)

현재주가(7.07) 149,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154,200/41,000
시가총액(십억원)	5,687.6
시가총액비중(%)	0.23
발행주식수(천주)	38,04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00.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5.0
외국인지분율(%)	24.27
주요주주 지분율(%)	
감봉훈 외 5인	34.31
국민연금공단	8.3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193.9	1,552.5
영업이익(십억원)	236.3	317.6
순이익(십억원)	199.1	262.3
EPS(원)	5,261	6,895
BPS(원)	13,814	20,82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523.8	722.8	1,245.2	1,608.8
영업이익	104.2	122.7	255.0	343.2
세전이익	105.8	133.3	268.3	358.8
순이익	81.5	107.6	217.2	287.0
EPS	2,249	2,842	5,824	7,707
증감율	166.15	26.37	104.93	32.33
PER	0.00	17.59	23.66	17.88
PBR	0.00	4.97	8.54	5.78
EV/EBITDA	(0.92)	13.09	6.12	4.00
ROE	54.87	41.34	50.27	41.95
BPS	5,414	10,058	16,130	23,836
DPS	0	0	0	0



Analyst 박은정 eunjung.park3@hanafn.com
RA 김다혜 kim.dahae@hanafn.com

에이피알 (278470)**역대 최대 실적 전망****2Q25 Preview: 역대 최대 실적 전망**

에이피알의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3천억원(YoY+93%), 영업이익 657억원(YoY+135%, 영업이익률 22%)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575억원)를 상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상회의 주요 요인은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시장과 B2B 부문의 호조에 기인한다. 미국과 일본 시장 모두 K-뷰티 진출이 확대되며 브랜드 간 성장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는 소비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며 각 시장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쇼핑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베스트 셀러 중심의 판매 흐름이 견조했으며, 핵심 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이 글로벌 확장의 레버리지로 작용해 기타 지역으로의 확장이 수월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외 +196% = 미국 +238%, 일본 +299%, 기타 +319%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은 2.3천억원(YoY+196%)으로 전년동기비 약 3배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수요 확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①**미국**은 매출 842억원(YoY+238%)으로 3배 이상 성장하며, 미국 내 한국 브랜드 중 매출 1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 이벤트 부재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으며, 기기 부문 또한 인지도 확대에 따라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②**일본**은 매출 376억원(YoY+29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큐텐(Qoo10) 메가와라 프로모션 기간 중 화장품과 기기 모두에서 강한 수요가 집중된 효과가 더해졌고, 매출 증가에 따라 마케팅 효율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프라인 진출도 병행되고 있다. ③**기타지역**은 매출 713억원 (YoY+319%)으로 약 4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북미에서의 인지도 확대가 선순환 되며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판매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④**영업이익률**은 22% (+3%p) 예상되며, 매출 확대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동반되고 있다.

본격적인 글로벌 전방위 확장 국면 진입

동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등 주력 시장의 이커머스에 집중하며 압도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현지에서 K-뷰티에 대한 수요층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사는 경쟁 브랜드 대비 확연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 중이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도 병행되며 브랜드 접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유럽과 중동에서도 K-뷰티의 뉴니스와 빠른 스케일업 속도를 바탕으로 점유율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피알의 2025년 실적은 연결 매출 1.2조원(YoY+72%), 영업이익 2.5천억원 (YoY+108%) 전망되며, 특히 2024~2027년 기간 동안 해외 매출은 연평균 +61%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전방위 확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이피알에 대한 투자 의견 BUY 유지, 추정치 상향 및 12M Fwd eps에 P/E 30배(14~16년 중국 확장기 대형사 평균 밸류에이션) 적용,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며 업종 최선호주 의견 유지한다.

2025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90,000원(상향)
현재주가(7.07) 195,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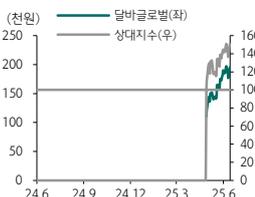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196,900/110,100
시가총액(십억원)	2,360.4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12,101.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63.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7.5
외국인지분율(%)	6.98
주요주주 지분율(%)	
반성연 외 6인	19.19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8.3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10.1	684.3
영업이익(십억원)	130.0	191.6
순이익(십억원)	108.9	149.9
EPS(원)	7,959	11,160
BPS(원)	16,373	27,339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00.8	309.1	566.4	718.7
영업이익	32.4	59.8	150.9	200.8
세전이익	15.3	29.1	160.2	210.2
순이익	13.6	15.4	121.9	159.8
EPS	1,466	1,427	10,268	13,204
증감율	N/A	(2.66)	619.55	28.59
PER	0.00	0.00	19.00	14.78
PBR	0.00	0.00	10.71	6.27
EV/EBITDA	(0.03)	(0.84)	14.76	10.47
ROE	87.69	26.21	75.58	53.53
BPS	1,658	8,902	18,216	31,115
DPS	267	305	305	305



Analyst 박은정 eunjung.park3@hanafn.com
RA 김다혜 kim.dahae@hanafn.com

달바글로벌 (483650)

분기 최대 실적 전망

2Q25 Preview: 분기 최대 실적 전망

달바글로벌의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1.4천억원(YoY+91%), 영업이익 397억원(YoY+126%, 영업이익률 28%)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364억원)를 상회하며,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실적 상회의 주요 요인은 동사의 핵심 시장인 일본/러시아/북미 지역이 확장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매출 확장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형 성장에 따라 전년 대비 각 지역의 이익 체력도 개선되고 있다. 상반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외형 성장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주력 지역의 오프라인 진출이 추가되며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사는 아세안 및 유럽을 차세대 성장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26년에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159% = 일본 +333%, 러시아/CIS +43%, 북미 +190%

달바글로벌의 해외 매출은 845억원(YoY+159%)을 전망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해외 확장의 초기 국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방위적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①**일본**은 매출 240억원(YoY+333%)으로 약 4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은 각각 70%, 30% 기여하고 있으며, 쿨텐/라쿠텐/아마존P에서의 월평균 거래액이 약 3배 증가하며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오프라인 1천개 매장에 입점한 데 이어, 2분기 기준 약 1.5천개까지 매장 수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②**러시아/CIS** 지역은 매출 190억원(YoY+43%)이 예상된다. 2분기에는 선크림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CIS 권역의 마케팅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③**미국**은 매출 153억원(YoY+190%)으로 약 3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전분기 기준 아마존과 B2B 비중은 80%, 20% 수준이며, 성장 초기 단계로 아마존 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과 선크림 모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외에도 역직구 플랫폼과 틱톡샵 등 신규 채널에 진출해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④**영업이익률**은 28% (+4%p)가 예상되며, 핵심 제품군 중심의 고성장에 따라 비용 효율화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외형 확장 본격화, 구조적 성장 자신감

2025년 달바글로벌의 실적은 연결 매출 5.6천억원(YoY+83%), 영업이익 1.5천억원(YoY+152%, 이익률 27%)으로 전망한다. 올해는 일본/러시아/북미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외형 확장이 기대되며, 2026년에는 아세안 및 유럽 지역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전방위적 확장 예상된다. 동사는 2028년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 매출의 빠른 증가와 오프라인 진출 속도를 감안할 때, 목표 달성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달바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견 BUY 유지, 추정치 상향 및 12M Fwd eps에 P/E 24배 적용('14~'16년 중국 확장기 대형사의 평균 P/E 30배에 20% 할인), 목표주가를 29만원으로 상향한다.

2025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550,000원(상향)
현재주가(7.07) 417,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78.46
52주 최고/최저(원)	445,500/261,500
시가총액(십억원)	22,294.9
시가총액비중(%)	5.52
발행주식수(천주)	53,46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70.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6.7
외국인지분율(%)	14.28
주요주주 지분율(%)	
박순재 외 4인	20.40
영인우 외 1인	4.9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55.7	646.7
영업이익(십억원)	162.2	541.6
순이익(십억원)	133.8	534.5
EPS(원)	2,478	9,967
BPS(원)	7,620	17,592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96.5	102.9	283.9	852.8
영업이익	(9.7)	25.4	196.5	765.3
세전이익	(3.6)	36.6	201.6	780.5
순이익	(3.4)	62.3	193.7	617.6
EPS	(64)	1,171	3,601	11,459
증감율	적지	폭전	207.51	218.22
PER	(1,539.06)	264.30	115.80	36.39
PBR	34.94	60.02	46.81	20.47
EV/EBITDA	(798.73)	581.19	110.88	28.00
ROE	(2.27)	29.52	51.48	78.42
BPS	2,819	5,157	8,908	20,368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알테오젠 (196170)

코스피 이전 가능성과 BS까지 시장 확대 부각

2대 주주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청, 키트루다SC 승인 후 실현될 전망

어제자인 7월7일 알테오젠의 2대주주(270만주 보유)인 스마트앤그로스 영인우 대표가 코스피 이전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과 이전 상장을 요청할 것임을 알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였다. 할로자임을 예로 들면, 알테오젠은 분기 당 로열티 수익으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영업이익률은 분기당 50%를 초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알테오젠의 주 제품인 ALT-B4의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PTA, PTE 등 모든 연장 조건 반영시 2042년 초에 이를 것으로 예상)까지 이므로 ALT-B4만으로 수익화가 가능한 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다. 따라서 알테오젠의 시총을 감당할 시장이 있다면 할로자임의 사업 모델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BITDA 및 배수 추정시 현재 30조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andoz로 확인한 새로운 시장: BS의 오리지널사 특허 회피 전략

Sandoz는 1Q25에 Darzalex SC와 Ocrevus SC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IV로 투여 시 투여 시간이 (일반 유지요법 기준) 3.5 시간 이상으로 IV보다 SC의 시장이 더 넓다. Darzalex SC의 경우 이미 SC 출시 후 IV-to-SC 전환율이 95%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그 시장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Sandoz는 ALT-B4가 아닌 알테오젠과 새로 개발한 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SC제형 시리즈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ALT-B4가 있는데 효소를 새로 개발한 이유는 당시에 할로자임과의 분쟁요소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할로자임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PGRI 진행 중이고 Merck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ALT-B4의 상용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ALT-B4 분쟁 요소가 제거된다면 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할로자임의 Enhance으로 이미 특허를 확보한 오리지널 사와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LT-B4를 활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목표주가 550,000원 상향, PoC와 독점권을 모두 가진 유일한 파이프라인

제안하는 목표주가는 지난 밸류에이션에 BS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고,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할인률을 20%로 낮춰 조정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5F EBITDA 2조 5,091억원, 영업이익 1조 7,450억원(OPM31%)으로 추정한 바 있다. 파트너 추가 및 라이선스 수익 추정시, 알테오젠은 2032년에 영업이익 1조2,633억원(OPM50% 가정, 할로자임 수익모델)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의 차이(72.4%)를 할인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 지표로 현재화 하여 계산하였을 때 시가총액은 약 30조 수준은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7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71,000원(상향)
현재주가(7.07) 61,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69,400/37,500
시가총액(십억원)	5,303.3
시가총액비중(%)	0.21
발행주식수(천주)	85,953.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1.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9
외국인지분율(%)	25.17
주요주주 지분율(%)	
방준혁 외 12 인	24.33
HAN RIVER INVESTMENT PTE. LTD.	17.5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770.9	2,877.3
영업이익(십억원)	262.9	288.2
순이익(십억원)	230.1	260.8
EPS(원)	2,467	2,846
BPS(원)	69,101	72,956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02.1	2,663.8	2,871.6	2,916.6
영업이익	(68.5)	215.6	345.4	370.5
세전이익	(158.6)	76.3	348.3	399.5
순이익	(255.7)	25.6	259.8	293.5
EPS	(2,975)	298	3,022	3,414
증감률	적지	폭전	914.09	12.97
PER	(19.53)	173.49	20.42	18.07
PBR	0.93	0.76	0.88	0.85
EV/EBITDA	54.91	14.86	12.77	11.90
ROE	(4.90)	0.49	4.72	5.13
BPS	62,650	67,728	69,779	72,795
DPS	0	417	417	417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넷마블 (251270)

완벽했던 상반기

2Q25 Pre: RF, 세나로 컨센서스 상회

넷마블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7,296억원(-6.7%YoY, +16.9%QoQ), 영업이익 856억원(-23.0YoY, +72.3%QoQ, OPM 11.7%)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2분기 출시한 [세븐나이트 리버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영향이다. [세븐나이트 리버스]는 5월 15일 출시 이후 800억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1분기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도 안정적인 매출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두 게임 모두 현지점에도 양대 스토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에 올해 실적 하방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왕좌의 게임: 킹스 로드]는 5월 21일 PC/모바일로 북미, 유럽 지역에 동시 출시했으나 초기 안착에 실패했기에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신작, 우선 기대해 보자

넷마블은 2025년 영업수익 2조 8,716억원(+7.8%YoY), 영업이익 3,454억원(+60.2%YoY, OPM 12.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세븐나이트 리버스]의 성공적인 출시에 따라 연간 추정치를 상향했다. 하반기 6종의 신작이 남아있다. MMORPG [뱀피르]는 6월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했고 디렉터스 코멘터리와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4분기 MMORPG 경쟁작이 포화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9월 출시를 예상한다. 이외에도 기대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스템, [몬길: STAR DIVE],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상반기 출시작들이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고 실적을 내고 있기에 보다 편안하게 신작 성과를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1,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1,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12MF 예상 EPS에 Target Multiple 20배를 적용했다. [세븐나이트 리버스]의 성공으로 오리지널 IP 파워를 확인하며 주가는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의 실적을 기대하던 작년 7월 2분기 프리뷰 시즌 수준으로 회복했다. [세븐나이트 리버스]가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에 기여하여 PLC 확장에 성공한다면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은 9개 이상의 신작이 집중된 해다. 상반기 출시작들만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내년 라인업에 대한 정보 공개로 가시성을 높인다면 보다 편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2025년 7월 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7.07) 54,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61,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1,577.2
시가총액비중(%)	0.47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7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2.7
외국인지분율(%)	40.23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8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877.4	18,204.1
영업이익(십억원)	1,873.6	1,969.3
순이익(십억원)	1,205.4	1,326.8
EPS(원)	5,445	5,910
BPS(원)	56,469	58,61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454.9	18,244.8
영업이익	1,753.2	1,823.4	1,510.0	1,938.8
세전이익	1,488.2	1,761.8	1,270.5	1,655.8
순이익	1,093.6	1,250.2	921.6	1,225.0
EPS	4,997	5,810	4,291	5,703
종감율	19.86	16.27	(26.14)	32.91
PER	10.03	9.50	12.58	9.47
PBR	0.94	1.01	0.97	0.93
EV/EBITDA	3.87	3.73	3.69	3.13
ROE	9.63	10.83	7.83	10.14
BPS	53,424	54,898	55,586	57,781
DPS	3,540	3,540	3,540	3,540



Analyst 김홍식 prol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SK텔레콤 (017670)**올해 배당금은 유지될 전망, 악재 소멸로 봐야****매수 의견/12개월 TP 7만원 유지, 금주 주가 하락한다면 매수 강도 높여야**

SKT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7만원을 유지한다. 1) 일회성비용 5천억원을 제거하면 2025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2) 유심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배당 감소 가능성이 낮으며, 3) 8월 요금 50% 할인 적용 기준일이 7/15일임을 감안 시 7월 가입자 순증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펀더멘탈 훼손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금주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매수 강도를 높일 것을 권한다.

해킹 이슈로 인한 총 연결영업이익 감소 폭 5천억원 전망, 3분기 이익 급감 예상

SKT 경영진이 2025년 4월 발생한 해킹 사건 관련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해킹 사고 이후 4~6월 해지자 및 향후 7/14일까지 해약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2) 7/15일자 기준 SKT 잔존 고객에 대한 8월 이동전화 요금 50% 감면, 3) 8~12월까지 전 고객에게 매일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4) T멤버십 제휴사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유심 해킹 사건이 SKT 실적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2025년 연간 영업이익 감소분은 대략 5천억원이 예상된다. 요금 할인 및 데이터 무료 제공 확대에 따른 이동전화매출액 감소분, 유심 교체 관련 비용, 가입자 모집 정지에 따른 마케팅비용 감소분, 멤버십 제휴 할인 영향, 위약금 면제, 과징금 등을 모두 감안 시 그렇다. 분기별로는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분기 실적에 유심 교체 관련 비용이 반영될 것이지만 SKT 연결 영업이익은 5천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에 따른 마케팅비용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3분기 SKT 연결 영업이익은 940억원으로 급감이 예상된다. 이번 보상책 중 가장 영향이 큰 전 고객 대상 요금 50% 감면이 8월 한달 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4분기엔 YoY 연결 영업이익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감안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향후 보안 사고 발생 사업자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배당 감소 가능성 희박, 7월 분기 배당 공시에 주목

이번 유심 해킹 사건이 SKT에 실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2025년 SKT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5,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2025년 SKT DPS 전망치는 3,540원으로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 추정 순이익이 여전히 9,200억원에 달해 배당성향 84% 유지만으로도 배당금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유심 해킹 관련 비용은 사실상 일회성비용으로 배당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분기 배당 공시일을 감안하면 7월 말 SKT 분기 배당이 공개될 전망이다. 830원으로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7월 분기 배당 공시를 계기로 SKT 배당 감소 리스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025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Company Memo

Neutral (유지)

목표주가(12M) 336,000원
현재주가(7.7) 315,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436,500/268,000
시가총액(십억원)	73,710.0
시가총액비중(%)	2.94
발행주식수(천주)	234,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63.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1.1
외국인지분율(%)	4.17
주요주주 지분율(%)	
LG화학	81.84
국민연금공단	6.1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5,807.2	32,176.7
영업이익(십억원)	1,720.9	3,617.1
순이익(십억원)	1,358.6	2,959.9
EPS(원)	1,261	6,066
BPS(원)	93,756	102,334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3,745.5	25,619.6	25,310.2	29,196.4
영업이익	2,163.2	575.4	1,360.9	2,491.8
세전이익	2,043.5	348.9	823.0	1,789.5
순이익	1,237.2	(1,018.7)	198.7	809.6
EPS	5,287	(4,354)	849	3,460
증감율	59.97	적전	흑전	307.54
PER	80.86	(79.93)	365.72	89.74
PBR	4.95	3.86	3.41	3.28
EV/EBITDA	29.17	48.47	28.98	23.33
ROE	6.36	(4.93)	0.94	3.73
BPS	86,328	90,240	91,089	94,549
DPS	0	0	0	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LG에너지솔루션 (373220)

힘든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익 레벨

2Q25 Review : 6개 분기만에 AMPC 없이 BEP 회복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목표주가 336,000원을 유지한다. 2Q25 잠정 실적은 매출 5.6조원 (YoY -10%, QoQ -11%), 영업이익 4,922억원(YoY +152%, QoQ +31%)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3,150억원)를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8.8%로 전분기 대비 +2.9%p 개선됐다.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금액은 4,908억원이다(AMPC 포함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4Q24: -3.5%, 1Q25: 5.9%). AMPC 발생 금액을 배터리 용량으로 환산 시 약 10GWh의 셀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전기차 대수로 환산하면 약 11만대에 대응하는 배터리 셀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MPC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 (OPM: 0.0%)이다(AMPC 제외 시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4Q24: -9.3%, 1Q25: -1.3%). AMPC 없이 BEP 수준을 회복한 것은 6개 분기 만이다. 다만, 매출이 여전히 전분기 대비 감소세라는 점 감안할 때, 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 부진 불구 북미 판매 호조

부문별 실적은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중대형 전지 부문의 경우,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세 고려하면, 전분기 대비 배터리 출하량이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GM을 포함한 북미 고객사들의 선주문 효과(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대비)가 유럽 시장의 부진을 상당부분 상쇄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 매출의 25% 차지하는 소형 전지 부문의 경우, 테슬라 판매 부진 불구하고, 신차 출시 앞둔 주문량 증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배터리 출하량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ESS 북미 신규 생산 돌입한 것 역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매출 감소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 불구 투자의견 중립 유지

상반기 AMPC 총액을 감안하면, 전기차 대수 기준 약 20만대(1분기 9만대, 2분기 11만대)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7.8만대이므로, 현재 북미 고객사 내 배터리 재고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GM 외 고객사 및 2분기부터 발생한 현지 ESS 생산 물량이 이번 AMPC 금액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일부 감안해야 하겠으나, 이를 고려해도 하반기 배터리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현재 컨센서스는 3분기 매출 6.6조원(YoY -5%, QoQ +20%) 및 4분기 7.1조원(YoY +10%, QoQ +9%)에 형성돼 있는데 추정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매출 YoY 증감률이 1Q24 -30%, 2Q24 -30%, 3Q24 -16%, 4Q24 -19%, 1Q25 +2%, 2Q25 -10%로 감소폭이 점진적 축소되는 흐름에 있고, QoQ 증감률 역시 4Q24 -6%, 1Q25 -3%, 2Q25 -11%에서 3분기부터는 Flat 이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상기 전망에 기초해 2030년 예상 실적 및 Target P/E 20배를 적용, 목표주가 336,000원,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2025년 7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29,000원
현재주가(7.07) 74,1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3,059.47
52주 최고/최저(원)	113,900/64,700
시가총액(십억원)	12,126.3
시가총액비중(%)	0.48
발행주식수(천주)	163,64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74.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4.3
외국인지분율(%)	29.55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2인	35.11
국민연금공단	7.4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0,106.2	93,642.2
영업이익(십억원)	3,118.1	3,735.8
순이익(십억원)	1,474.7	1,963.8
EPS(원)	6,597	8,818
BPS(원)	123,320	131,04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2,262.7	87,728.2	87,942.7	93,782.6
영업이익	3,653.3	3,419.7	2,571.9	3,466.8
세전이익	2,014.9	1,335.8	1,897.7	2,201.3
순이익	712.9	367.5	1,339.5	1,374.2
EPS	3,942	2,032	7,407	7,599
증감율	(40.42)	(48.45)	264.52	2.59
PER	25.82	41.09	10.00	9.75
PBR	0.93	0.72	0.60	0.57
EV/EBITDA	3.96	3.66	3.81	3.19
ROE	3.69	1.81	6.17	5.97
BPS	108,993	116,348	124,324	130,922
DPS	800	1,000	1,000	1,00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LG전자 (066570)

소비심리 둔화로 예상치 하회

2Q25 Review: 예상대비 부진했던 MS

LG전자는 25년 2분기 매출액 20조 7,400억원 (YoY -4.4%, QoQ -8.8%), 영업이익 6,391억원 (YoY -46.6%, QoQ -49.2%)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하나증권 추정치에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14% 가량 하회했는데 TV, IT, ID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MS 사업부문의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해 LG이노텍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기존 예상대비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정적 영업 환경에서도 HS 부문은 자본투입 및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으며 ES 부문 역시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예상대비 호실적을 기록했다. VS 부문은 견조한 IM 수주를 기반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불리한 영업환경 감안해 25년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해 25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9% 하향 조정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소비심리 악화로 인해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영업환경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부 재편 이후 IT, ID 등이 MS 사업부에 포함되면서 연내 MS 사업부문의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사적으로 재고는 건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 마케팅 비용은 평년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물류비 또한 전년대비 완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저평가 구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요 회복 시그널 필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29,000원을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요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려우나 LG전자의 12MF PBR은 0.58배 수준으로 여전히 밴드차트 하단에 위치해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다. 다만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미, 유럽 등 주요 수요처의 소비심리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리 인하 및 주택 수요 반등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도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하반기에는 인도 IPO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7월 8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이브(352820)

BUY | TP 350,000원 | CP 277,500원

에스엠(041510)

BUY | TP 170,000원 | CP 129,300원

JYP Ent.(035900)

BUY | TP 90,000원 | CP 71,1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 TP 120,000원(상향) | CP 82,700원

*CP 2025년 7월 7일

엔터테인먼트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상 무

단기 가격 조정은 비중 확대로 대응할 필요

최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3~4월에도 무관세/한한령의 수혜로 가파른 주가 상승 후 기간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매우 비슷한 맥락으로 예상된다. 실적은 1) BTS와 블랙핑크의 동반 컴백으로 2024년 이후 2년간 산업 내 증익은 약 140% 내외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2) 최근 실적 서프라이즈 요인이 MD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꾸준한 전망치 상향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동방신기/빅뱅의 사례처럼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까지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며, 하반기 한한령 완화 모멘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정 시 마다 비중확대를 추천하며 블랙핑크 투어 재개로 MD 부문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YG의 목표주가를 120,000원(+9%)으로 상향한다.

2분기 실적은 SM/JYP 상회, YG 부합, 하이브 하회

2분기 하이브/SM/JYP/YG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642억원(+26%)/418억원(+69%)/478억원(+412%)/23억원(흑전)으로 SM/JYP 컨센서스 상회, YG 부합, 하이브 하회로 예상된다. SM은 라이즈/NCT wish 등 신인 남자 아이돌의 매우 높은 성과에 더해 디어유이의 연결 반영이 긍정적이며, JYP는 컴백 부재에도 스트레이키즈의 역대 최대 월드 투어가 반영된다. 하이브는 주요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컴백했지만 일본/라틴 남자 데뷔 및 세븐틴 10주년 관련 비용으로 부진하며, YG는 3분기부터 블랙핑크의 스타디움 월드 투어가 반영될 것이다. 특이 사항으로는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2026년 봄으로 확정되면서 2025년 실적은 하향, 2026년은 상향으로 반영했다.

일본 티켓 가격은 한국 수준으로 인상

2024년 주요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일본 투어에도 불구하고 JYP를 제외한 주요 기획사들의 일본 법인의 실적이 정체되거나 부진했는데, 이는 지속된 엔저에 더해 너무 낮은 일본 티켓 가격 때문이다. 제작비/인력 등 가파른 원가 상승 요인으로 한국 투어 티켓 가격은 이미 15~18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JYP나 SM의 일본 티켓 가격의 경우 ¥13,000(당시 환율 기준 약 12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혹은 재개된 일본 투어에서는 약 ¥2,000 ~ ¥3,000 수준의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획사들의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 제고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5년 7월 8일 | 산업분석

Overweight

관심종목

*CP 2025년 7월 7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30,000원 | CP 23,600원

진에어(272450)

BUY | TP 12,000원 | CP 9,360원

운송

6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점

6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590.5만명(+3% (YoY))

6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3% (YoY) 증가한 590.5만명을 기록했다. 6월 일본/동남아/중국 여객수송량이 +5%/-8%/+22%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지역의 여객수송량은 +3%/-8% 변동했다. 2분기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4% (YoY) 증가하면서 1분기(+8%) 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6월 인천공항 환승객은 56.7만명(-3% (YoY), 비중 9.6%)이었다. 항공사별 6월 여객수송실적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월 비 6%/5% 증가했고, 진에어/티웨이항공은 -2%/+7% 변동했다. 2분기 항공사별 여객수송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 각각 9%/7%/7%/8% 증가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6월 여객수송실적이 12% (YoY) 감소했고, 2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18% 감소했다.

6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5.1만톤(-1%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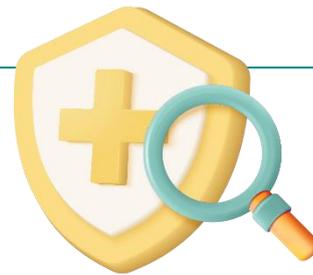
6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1% (YoY) 감소한 25.1만톤을 기록했다. 6월 중국/동남아 지역 수송량은 1%/5% (YoY) 증가했으나, 미주/유럽 지역은 6%/8% 감소했다. 2분기 인천공항 화물수송량은 0% (YoY) 감소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6월 화물수송실적은 각각 4%/+1% (YoY) 변동했고, 2분기 합산으로는 3%/1% 감소했다.

여객 증가세 둔화, 하반기 반전 가능할지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반등하고 환율이 하향안정화 된 것에 비해서 여객 수송량 증가율은 저조했다. 특히 6월 일본 향 여객 증가율이 5% (YoY)로 눈에 띄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7~8월은 휴가철 성수기이고, 7월부터 민생 소비쿠폰이 발급되면서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며 동시에 해외여행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분기는 항공사의 전통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항공사 수익성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진에어/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LCC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수기 실적에 크게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 여객량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늘어난 단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견조하게 증가하는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항공화물 물동량과 운임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항공 여객 수요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하나 월간 제약/바이오(7월)

제약바이오 Monthly | 2025년 07월 08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hanafn.com

7월 실적 회복 확인, 기술이전 기다림에 대한 피로도 누적

1) 하반기 진입, 1H25 Review

- **대형 제약사의 실적 부진과 이벤트 부재.** 2025년 상반기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것은 미국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대형 코스피 헬스케어 종목에 대해 미국 의약품 관세/ 약가 인하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적으로 악재로 잔존한 영향. 대형 제약사에서 기술이전이나 마일스톤 수령 기대감이 낮은 것도 올해 수익률이 부진했던 것도 큰 요인
- **기술이전 기다림에 대한 피로도 누적으로 민감해진 시장.** 기대치 이하의 기술이전 규모/ 모호한 계약 구조/ 기술이전 시기 지연 등으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 지난 7월 첫 주에 연달아 있었던 지아이노베이션, 리가캠바이오의 R&D 성과 발표에 따른 추가 변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은 그 성과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가 명확하게 기술이전과 맞닿아 있는지 주시하고 있음. 추가의 기술이전과 기대하는 모멘텀이 실현되는 것이 절실해 보임

2) 7월 제약/바이오 관련 동향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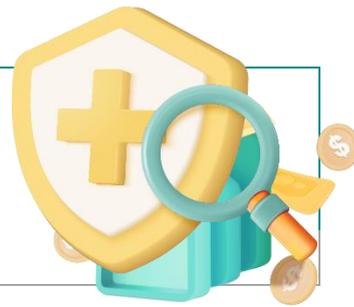
- 유동성 장세와 금리 인하 분위기 유효하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 이하로 감소하는지 여부가 하반기 수익률을 결정할 것
-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고 업종을 선별함. 또한 7월-8월은 주요한 학회가 부재함.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제약사의 실적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

3) 7월 투자 아이디어

- **투자 아이디어 ①: 관세/약가 이슈 해소에 따른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 헬스케어 종목 내 코스피/코스닥 디커플링이 트럼프 당선 이후였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제약사의 추가 하락을 이해할 수 있음. 여기에 실제로 1) 대외 이슈로 인한 신규 수주 지연, 2) Formulary 결정 시기, 3) 프로모션 결정 시기로 인한 계절적 이유가 작용하여 1Q25 실적이 부진한 경우 발생, 한편 원/달러 약세 분위기 상 2분기에 실적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반기도 우려.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SK바이오팜 7-8월 Top pick**으로 제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전에 2nd Product의 도입을 시도하는 이벤트 기대감도 보유
- **투자 아이디어 ②: 7월-8월 이벤트가 뚜렷한 기업이라면 관심을 유지**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가 부진한 중에도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가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약가 문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이전 이벤트에 민감하기 때문. 다만 학회 이벤트가 없으므로 개별 기업의 R&D 타임라인을 추종할 것. 이러한 종목으로 **셀비온 7-8월 Top pick**으로 제시. 8월 중순 이후 11월 CSR 수령, 조건부허가신청, 내년 키트루다 병용 임상 중간 결과 발표 등 추가 상승 모멘텀도 보유
- **투자 아이디어 ③: 컨센서스로 씨앗 찾기** 컨센서스 상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은 벌써 주가가 반응 중. 1)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QoQ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셀트리온, HK이노엔, 동국제약**, 2) 매출이 QoQ 1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한양행, 녹십자, 에스티팜, 바이넥스**, 3) 상기 두 개의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4Q24, 1Q25와 비교하여 나보타 수출량이 크게 증가함이 확인된 **대웅제약**은 컨센서스 상회도 기대할 수 있음

수도권 과열 시 추가 대책 예고

건설 Weekly | 2025.07.08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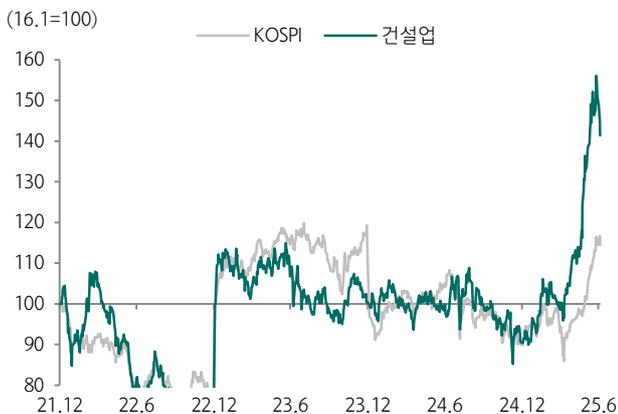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6.6%p 하회했다. 이번 주 수급도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부동산 과열 시 후속조치 예고에 주박주는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 P4, P5 투자 재개 기대감에 삼성E&A는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4.6으로 5주 연속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연속 상승(+0.07%), 전세기도 4주 연속 상승했다(+0.02%). 수도권 매매가는 19주 연속 상승(+0.17%), 전세기도 20주 연속 상승(+0.05%)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24주 연속 상승(+0.40%), 전세가는 21주 연속 상승(+0.07%)했다. 지방광역시(-0.04%)와 기타지방(-0.02%)의 매매가는 57주 연속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는 하락(-0.01%), 기타지방은 13주 연속 하락했다(-0.02%). 세부지역별로는 토허제 지역인 강남구(+0.73%), 송파구(+0.75%), 서초구(+0.65%), 용산구(+0.58%)를 비롯하여, 성동구(+0.89%), 마포구(+0.85%), 양천구(+0.60%), 영등포구(+0.66%), 강동구(+0.62%), 과천(+0.98%), 성남 분당구(+1.17%)/수정구(+0.21%), 용인 수지구(+0.26%), 안양 동안구(+0.37%), 하남시(+0.17%)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 지난 주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7건이다(대구, 부산, 경기용인/광주/안양, 광주, 충남아산). 대구는 크게 미달했으며, 경기도 일부 미달하거나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19건이다(경남양산, 경기광주/시흥/이천/김포/평택, 충남아산, 서울성동/영등포,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인천송도, 전남해남).
- 새 정부는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이 여전히 많음을 시사했다. 공급확대책 뿐 아니라 수요 억제책도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신도시 공급 속도를 빨리하고, 신규택지 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수요 억제책도 대출 규제 말고도 많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과열된 모습을 보이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주택주 단기 센터는 약해질 수 있기에, 단기 관망 의견을 제시한다. 여전히 주택 지표, 특히 착공은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무거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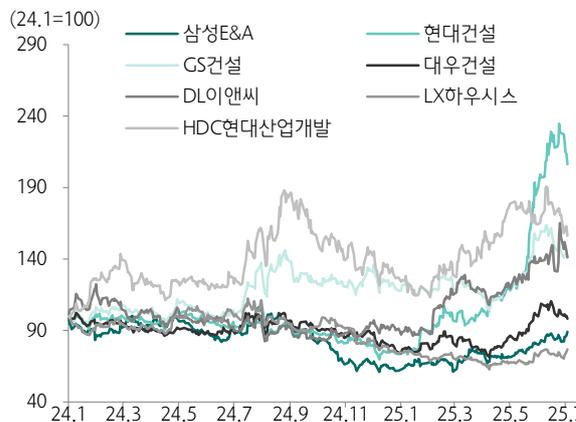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2025년 7월 7일 | Global Equity

Datadog Inc. (DDOG)

S&P500 편입과 AI 전략 강화

- DDOG Added to S&P 500: Validation Moment for Observability Name-PT to \$170

OUTPERFORM

TP(12개월)	\$170.00
CP(7.3)	\$135.01

Company Information

Market Cap (M)	\$45,701
Enterprise Value (M)	\$41,592
Shares Outst. (M)	363.1
52-Week Range	\$81.63 - \$170.08

REV(M)

(in \$)

FYE	Dec	2024A	2025E	2026E
Q1	Mar	611.3A	761.6A	906.2E
Q2	Jun	645.3A	789.2E	954.9E
Q3	Sep	690.0A	812.1E	992.4E
Q4	Dec	737.7A	863.1E	1,063.4E
YEAR*		2,684.3A	3,226.0E	3,917.0E

EPS

(in \$)

FYE	Dec	2024A	2025E	2026E
Q1	Mar	0.44A	0.46A	0.44E
Q2	Jun	0.43A	0.41E	0.49E
Q3	Sep	0.46A	0.41E	0.53E
Q4	Dec	0.49A	0.42E	0.61E
YEAR*		1.83A	1.70E	2.08E
P/E		73.9x	79.4x	65.0x

Pricing data provided by Thomson Reuters.

*Numbers may not add up due to rounding

Compliance Notice

본 리포트는 Wedbush 사의 Analyst Daniel Ives가 작성한 보고서('DDOG Added to S&P 500: Validation Moment for Observability Name-PT to \$170' 7월 3일)를 번역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Wedbush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가 반영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adog, S&P500 편입 통해 AI 기반 성장성 재조명

S&P Global은 Datadog(DDOG)이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되며, HP Enterprise에 인수된 Juniper Networks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Robinhood나 Applovin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Datadog이 선택되며 시를 중심으로 한 옵저버빌리티(observability)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과 플랫폼 성장세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번 변경은 7월 9일(수) 정규 거래 개시 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수년간 Datadog의 성장 스토리를 정당화하는 상징적인 이정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Bits AI 중심의 AI 혁신 가속: Datadog, 옵저버빌리티 리더십 강화

최근 에이전트형 AI 사이드킥(agent AI sidekick)의 확산 흐름 속에서 Datadog은 자사 AI 플랫폼인 Bits AI를 중심으로, 개발자 경험의 효율화와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백그라운드 스캐닝을 통한 실시간 이슈 탐지, 버그 수정 자동 제안과 함께 추적 가능한 요약 제공, 지표 기반의 혁신적 모니터링 방식 등을 제품에 적용하며, 개발 생산성과 운영 자동화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tadog은 최근 OpenAI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에이전트형 AI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및 기능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유기적(organic) 및 비유기적(inorganic) 전략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옵저버빌리티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Datadog은 여전히 당사(Wedbush)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이며, 최근 진행된 시장 조사에서도 AI 혁신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강한 수요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다.

시장 지배력 강화 기대: 투자의견 Outperform 유지. 목표주가 \$170로 상향

당사(Wedbush)는 Datadog이 옵저버빌리티(observability) 시장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 기반 전반에서 AI 관련 기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GTM(Go-To-Market) 전략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한 고급 기능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수주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는 Datadog에 대한 투자의견 'Outperform(비중확대)'을 유지하며, 옵저버빌리티 분야에서의 전략적 실행력이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 강화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40에서 \$170로 상향 조정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7/7	310,500	315,000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5 Preview 매출액 5.5조원(YoY -11.0%), 영업이익 3,186억원(YoY +63.0%) 전망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불구 전기차 판매 지속 증가
KB금융 (105560.KS)	7/7	112,100	114,400	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은 약 1.65조원, 매매평가의 확대시에는 1.7조원 상회 가능할 전망 CET 1 비율 추가 상승으로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최소 7,000억 가능
현대차 (005380.KS)	7/7	210,500	208,500	-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44.4조원(YoY +9.0%), 영업이익 3.6조원(YoY +2.0%) 기록 현재 주가 수준에서 위험-수익(Risk-Reward) 기준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크다 판단
삼성전기 (009150.KS)	7/7	138,600	138,900	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5 Preview 매출액 2.7조원(YoY +6.0%), 영업이익 2,155억원(YoY +4.0%) 전망 고부가 시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S-Oil (010950.KS)	7/7	62,300	62,200	-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인해 내연기관의 수요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넷마블 (251270.KS)	7/7	61,400	61,700	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6,239억원(YoY +6.6%), 영업이익 497억원(YoY +1,243.2%) 기록 하반기 [뱀피리], [문갈: STAR DIVE], [프로젝트 SOL],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출시 예정
현대백화점 (069960.KS)	7/7	76,600	76,900	0.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수익성 측면 베이스 부담 낮기 때문에 무난한 이익 개선 흐름 전망 워치/주얼리와 같은 하이엔드 명품, 20% 성장하며 견고한 수요 유지
롯데엘푸드 (280360.KS)	7/7	121,300	126,600	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5 Preview 매출액 1.1조원(YoY +2.1%), 영업이익 510억원(YoY -19.4%) 전망 중장기 국내 생산 효율성 개선 및 해외 사업 저변 확대 기대감 유효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KQ)	7/7	84,800	82,70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부터 재개될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직전 대비 회당 2배 규모로 확대 트레저/베이비몬스터의 연간 2개 앨범 발매, 2026년 신인 보이그룹 1팀 데뷔 예정
ISC (095340.KQ)	7/7	60,600	61,100	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대비 판가 높은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 개발 기대 고객사의 GPU 생산량 확대에 의한 소켓 수요 증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62%	+0.45%p	+26.99%	+1.6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7/7	270,500	271,000	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S-Oil (010950.KS)	7/7	62,300	62,200	-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인해 내연기관의 수요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현대제철 (004020.KS)	7/7	34,750	35,350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5 Preview 매출액 5.9조원(YoY -2.6%), 영업이익 810억원(YoY -17.3%) 전망 국내 철근 유통가격 바닥 이후 상승세로 전환, 3분기 판재류와 봉형강 스프레드 확대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7/7	13,860	13,300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CJ프레시웨이 (051500.KQ)	7/7	28,450	29,250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7,986억원(YoY +9.2%), 영업이익 106억원(YoY +0.8%) 기록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아파트/군 급식 등 신규 수주 기대
KB금융 (105560.KS)	7/1	110,900	114,400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은 약 1.65조원, 매매평가의 확대시에는 1.7조원 상회 가능할 전망 CET 1 비율 추가 상승으로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최소 7,000억 가능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7/1	848,000	805,000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5.5조원(YoY +278.4%), 영업이익 5,608억원(YoY +3,057.0%) 기록 하반기 K9 자조포 및 천문의 인도 지속 고려, 고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NAVER (035420.KS)	7/1	262,500	256,00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버린AI 관련 정책 점차 가시화되면서 자체 LLM 모델, 공공 클라우드 역량 부각 전망 25~26년 AI 에이전트의 출시로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방어 가능
KT&G (033780.KS)	7/1	127,700	136,200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자사주 약 1.3조원 매입 소각과 약 2.4조원 규모 배당 이행 전망 국내 NCP 매출액 YoY 증가 흐름 및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망
한국금융지주 (071050.KS)	7/1	139,600	136,400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삼성E&A (028050.KS)	7/1	22,100	23,750	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5 Preview 매출액 2.2조원(YoY -16.5%), 영업이익 1,675억원(YoY -36.2%) 전망 하반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6공장 등의 일부 계열사 물량 수주 기대
에스엠 (041510.KQ)	7/1	141,000	129,300	-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5 Review 매출액 2,314억원(YoY +5.0%), 영업이익 326억원(YoY +110.0%) 기록 2대 주주인 텐센트 뮤직과 향후 중국향 사업 기회에서 다양한 시너지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97%	-3.61%p	+34.82%	+9.4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3.4	13,000	15,580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너어 (489290.KS)	2025.2.3	13,065	12,885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498400.KS)	2025.1.6	9,895	11,000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200 지수를 매수하는 동시에 KOSPI200 위클리 콜옵션을 일부만 매도하여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타겟 커버드콜 형태의 ETF 지수 저점 확인 과정에서 타겟 배당 수익(연 17% 목표)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익 안정화 추구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4,170	4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팔란티어, 샤오미,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59.10	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URA (미국 우라늄 주식)	2025.06.16	38.07	37.90	-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우라늄 생산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 편입하는 ETF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 증가, 탄소중립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SMR(소형모듈 원자로)을 중심으로 원전 테마의 추가 모멘텀 기대 유효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09.09	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PAVE (미국 인프라주)	2024.07.19	38.42	44.80	1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리쇼어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 내용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6	7.7	7.8	7.9	7.10	7.11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동행지수 P (105.3P/115.9P, 4월 104.2P/116.0P) 유로존 7월 선택스 투자 자기대지수 (E --, 6월 0.2P) 유로존 5월 소매판매 (E --, 4월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5월 수출/입 (E --/--, 4월 -1.7%/4.0%) 미국 6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 5월 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소비자물가 (E --, 5월 -0.1%) 중국 6월 생산자물가 (E --, 5월 -3.3%) 일본 6월 공작기계수주 P (E --, 5월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6월 RICS 주택가격 수지 (E --, 5월 -8.0%) 일본 6월 생산자물가 (E --, 5월 3.2%) 한국 7월 기준금리 (E 2.50%, 6월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5월 광공업생산 (E --, 4월 -0.6%) 영국 5월 건설생산 (E --, 4월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FOMC 의사록 한국은행 5월 금통위 		
7.13	7.14	7.15	7.16	7.17	7.18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E --, 4월 6.6%) 중국 6월 수출/입 (E 5.2%/-1.0%, 5월 4.8%/-3.4%) 일본 5월 광공업생산 (E -1.8%, 4월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2분기 GDP (E 5.2%, 1분기 5.4%) 중국 6월 광공업생산 (E 5.5%, 5월 5.8%) 중국 6월 소매판매 (E 5.1%, 5월 6.4%) 미국 6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2.7%/3.0%, 5월 2.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출/입 물가지수 (E --/--, 5월 -2.4%/-5.0%) 미국 6월 생산자물가 (E --, 5월 0.1%) 미국 6월 광공업생산 (E --, 5월 -0.2%) 미국 6월 설비가동률 (E --, 5월 7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수출/입 (E --/--, 5월 -1.7%/-7.7%)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F (E 2.0%/2.3%, 5월 1.9%/2.3%) 미국 6월 소매판매 (E --, 5월 -0.9%)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6월 3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5월 3.5%/3.7%)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 5월 -9.8%) 미국 6월 건축허가 (E --, 5월 -2.0%)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 자기대지수 P (E --, 6월 6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해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C(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업자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